

# 전통춤의 원형 선보이는 기획공연 '시대의 춤을 만나다'

###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초청 명무전, 내달 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은 전통춤의 원형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획공연 '시대의 춤을 만나다'를 통해 우리 춤의 진수를 선보인다.

오는 11월 2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향연-월하보부'를 주제로 열리는 공연은 우리 전통춤의 내로라하는 명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에는 이길주, 문정근, 서한우 등 전북과 중앙의 문화재급 명무들이 초청돼 국악원 무용단과 함께 품격 있는 전통춤의 대항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는 금척무, 호남한량무, 금아살풀이, 호남산조춤, 시나위춤, 흥푸리, 설장고춤, 버꾸춤 등 총 8개의 작품이 공연된다.

첫 무대는 궁중정재 '금척무'로 무용단 전단원이 무대에 오른다. 이는 지역 문화재이자 조선을 개국한 태조의 건국 이념에 부합되게 창작한 당악 정재양식의

춤으로 김광숙 명무(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8호 보유자)에 의해 보존 전승되어온 '금척무'를 지도받아 무대로 옮겨 놓은 작품이다. 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된 금파류의 한량무 '호남한량무'도 선보인다. 작품은 한량들의 품격과 자태를 강조하는 남성의 홀춤으로 이날 무대에서는 김수현 무용단장과 무용단 남자단원(배혜국, 송형준, 이종민, 김지춘, 오대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의 대미는 무용단 전단원이 출연하는 '버꾸춤'으로 장식된다. '버꾸춤'은 타악의 다양한 가락에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춤으로 전라남도 해안지역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에서 속해있던 춤이다. 이는 큰 중북 버꾸를 손잡이 없이 홀로 연결시켜 옮겨주고 가락을 치고 돌리며 추는 춤으로 신명나는 춤판이 펼쳐진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이번 기획공연은 '향연-월하보부'를 주제로 열린다. 위 장면은 공연의 대미인 '버꾸춤'

예매는 홈페이지(<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동서커피클래식' 전주 공연

### 내달 2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커피와 클래식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제9회 동서커피클래식' 공연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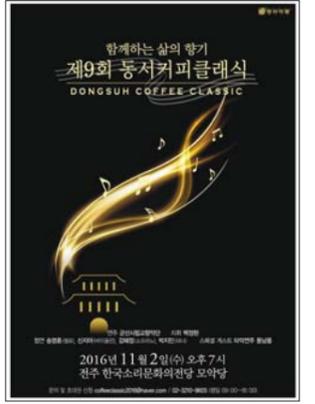
동서커피클래식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국내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문화 나눔 활동이다. 이는 문화체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주민을 위해 매해 무료로 진행되며 2008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인천, 대구, 광주, 창원, 청주에 이어 올해는 전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오는 11월 2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막을 올리는 이번 음악회에선 백정현 삼일지휘자의 지휘 하에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비롯 첼리스트 송영훈,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박지민 등 국내 유수의 음악가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주제의 '경거벽 서곡', 시라시네의 '카르멘 환상곡',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브람스의 '더블 콘체르토 3악장', 박범훈의 '사람놀이를 위한 협주곡(신모듬)' 중 3악장 '놀이',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레하르의 오페레타의 '미소의 나라' 중 아리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번스타인의 뮤지컬<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중 '마리아', 레온카발로의 '아침의 노래', 프레데릭 로우의 뮤지컬<마이 페어 레이디>중 '밤새도록 춤출 수 있다면', 레하르 오페레타의 <윌리엄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중 '투니외' 등의 음악선율로 구성된 공연은 클래식의 진한 향기를 남길 예정이다.

공연은 음악과 예술에 관심 있는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티켓 및 공연 문의는 이메일([coffeeclassic2016@naver.com](mailto:coffeeclassic2016@naver.com))과 전화(02-3210-9605)를 통해 가능하다.

동서식품 홍보팀 신연재 CSR 담당자는 "동서식품은 꾸준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후원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커피향과 어울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 많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동서커피클래식 공연 홍보 포스터



군산시와 주한 중국문화원은 공연·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중국 고품격 전통예술 군산에서 만끽한다

### 군산시·주한중국문화원, 문화예술 공연·전시 업무협약 체결

중국의 고품격 예술공연 및 전시회를 군산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와 주한 중국문화원(원장 스루이린, 史瑞琳)은 지난 28일 군산시청에서 중국 문화예술 공연·전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준 높은 중국 예술공연 및 전시를 군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공식 합의했다. 이 협약은 군산시와 주한 중국문화원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교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중국 내 23개성을 대표하는 양질의 예술공연을 군산에서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후베이성 경극원 공연단 및 관계자 40여명이 군산예술의전당

에서 국내에서 보기 힘든 수준 높은 경극 공연을 펼쳐 시민들의 탄성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당시 공연에서 객석을 확보하지 못한 관객 50여명이 공연장 밖 모니터를 통해 공연을 관람하는 등 수준 높은 중국 예술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군산시는 주한 중국문화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극, 변검, 무용 등 중국을 대표하는 예술공연 및 전시를 군산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한중 양국 간 문화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류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 정음시립미술관 개관 1주년 미술 기획 전시

지난 27일 정음시립미술관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전시전 개막식이 시립미술관 뮤지엄 교육실에서 열렸다.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 전시, '날아 멀리 비추오시라 - 현대 미디어 아트의 현장'에서는 국내에서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5명의 작품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김난영의 서양화, 양재문의 사진작업의 평면작품과 서남희, 안종연, 한송준의 입체, 미디어 아트 작품 등 빛과 에너지, 자연과 우주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장르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개막식에는 김생기 시장, 도·시의원과 각 기관·단체장 및 참여 작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김 시장은 식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24일 문을 연 정음시립미술관의 개관 1주년을 12만 정음시민과 함께 자축하고, 깊어가는 가을날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 전시전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음이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더욱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미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 작가들의 정서와 교감하며 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람을 당부했다.

시립미술관 전시 작품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립미술관 학예실(063.539-641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 이영철 우석대 교수

### '행복한 비빔밥' 출간

이영철 우석대 교수(특수교육과)가 에세이 '행복한 비빔밥' (책과나무)을 출간했다.

'행복한 비빔밥'에는 저자가 학교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겪었던 소소한 일상을 비롯해

스페인, 싱가포르 등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에피소드,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느낀 하느님과 나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이 교수는 책에서 "과거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의 나"라고 하며 "작은 일상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매듭을 푸는 열쇠"라고 말한다.

저자는 1997년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으로 등단해 '작은 사랑의 생각을 담기만 한다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랑', '낮선 세상에 홀로 서보면', '북어국', '아름다운 프로젝트' 등의 시집을 출간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해은 기자

## 전주역사박물관, 답사기행 참가자 모집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대산사고와 강원·충청강령'을 주제로 오는 11월 12일~13일 이틀 동안 답사를 진행한다.

이는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 전주문화연구회가 공동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 답사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답사기행은 조선왕실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 6탄으로 임진왜란 이후 실록이 보관된 5대 사고 중 하나인 오대산사고와 월정사 및 상원사 일대, 강원 원주강령과 충청 충주·공주강령을 답사한다.

또한 고려 말의 혼란한 정치를 개탄하며 치악산에 들어가 은거했던 유곡 원천석 묘역과 원주역사박물관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선착순 35명 모집으로 신청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전주 문화사학회 홈페이지([www.okjongju.net](http://www.okjongju.net))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0만원으로 차량·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의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 228-6485~6. /정해은 기자

## 다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0월 31일>



### ▷쥐띠

46년생: 분주한 운이나 결과는 예상보다 못하니 욕심을 버리라.  
60년생: 아프거나 다칠 수 있는 운이니 컨디션 조절에 주의하라.  
72년생: 심리적으로 불안한 운이다.  
84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성사가 가능하다.



### ▷소띠

49년생: 매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때.  
61년생: 이상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니 구설이 따른다.  
73년생: 의욕은 앞서나 결과는 빨리 얻지 못한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



### ▷호랑이띠

5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급성질환을 주의하라.  
62년생: 다른 사람의 덕은 보기 어렵다. 기대하지 말라.  
74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할 것. 좋은 결과.  
86년생: 타인으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긴다.



### ▷토끼띠

51년생: 타인과 화합하기에 좋은 운이다.  
63년생: 근근이 인내 근심 걱정이 생기는 운.  
75년생: 처음에는 구설이나 후반에는 화합이나 먼저 배틀라.  
87년생: 고집은 금물, 한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패는 없다.



### ▷용띠

52년생: 타인과의 불화, 시비, 구설이 예상되니 모임을 자제하라.  
64년생: 매사 처리해야 하는 일은 일찍 움직여야 성사 된다.  
76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  
88년생: 겉은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는 일에 휘말릴 수 있다.



### ▷말띠

53년생: 금전운이 들어왔으니 작은 일은 성공한다.  
65년생: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때다.  
77년생: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운.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다.



### ▷말뚝띠

54년생: 평소 애 베푼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이다.  
66년생: 손재주가 따르니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운이다.  
78년생: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  
90년생: 유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뜻하지 않은 횡행.



### ▷양띠

55년생: 가벼운 일이 무거운 벌로 돌아오는 때. 재나 깨나 말조심.  
67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비한다면 실망이 크다.  
79년생: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발전이 있는 운.  
91년생: 처음은 좋으나 끝은 불길하니, 매사 깊이 관여하지 말라.



### ▷염소띠

56년생: 평소 애 받았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68년생: 해야 할 일은 타인에게 미루지 말고 스스로 해결.  
80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는 운이다. 무리하지 말라.  
9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신난한 운이다.



### ▷개띠

57년생: 평소 애 알고 자냈던 사람에게 뜻밖의 도움..  
69년생: 문서를 주고받음에 있어 좋은 운이다.  
81년생: 타인과 화합이 잘 되고 결과가 좋은 운.  
93년생: 남자라면 여자의 도움을 여자라면, 연정자인 여성의 도움을 받으면 이루어진다.



### ▷돼지띠

46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라.  
58년생: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다.  
7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 강함과 약함을 조절하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 ▷돼지띠

47년생: 외부는 평탄한 듯하나 내적으로는 불안하다.  
59년생: 먼저 배틀면 후에 얻게 된다. 문서에도 길성.  
71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83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